

“침수 벼 2차 피해 막아라” 병해충 방제 안간힘

나주시, 긴급방제비 지원...방제기·무인헬기 등 장비 총동원
고흥군, 드론 활용 100ha ‘농작물 무상방제’ 서비스 실시
광양시, 섬진강 유역 다압·진상·진월면 축산농가 일제소독

최근 전남지역에 퍼부은 물폭탄에 따른 가옥과 농작물의 침수 피해에 이어 이번엔 질병·병해충 등 2차 피해가 커지고 있다. 지난 10일부터 시작된 수해 복구와 배수펌프장 가동 등으로 현재 벼는 물때기가 거의 완료된 상황이지만 침수된 벼는 도열병·흰잎마름병·잎집무늬마름병·흑명나방·먹노린재 등 병해충 발생 가능성이 높아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각종 가축질병과 인수공통전염병, 수인성질병의 발생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

지자체들은 공동방제 기간을 운영하고 무인헬기·광역방제기 등 장비를 총동원하고 있다.

◇나주시, 무인헬기 등 총동원령
나주시는 대규모 침수 피해를 입은 벼 농가의 2차 피해 예방에 힘을 쏟고 있다. 최근 집중호우와 하천 제방 붕괴로 나주시지역은 벼 1340ha가 침수됐다. 나주시는 농협 나주시지부와 협의를 통해 오는 22일까지를 공동방제 기간으로 정하고 벼 병해충 방제비를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방제 작업에는 광역방제기 3대·무인헬기 10여대 등 지역농협 방제장비를 총동원하고 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침수기간이 길어 벼 절기와

일 상태가 병해충 감염에 매우 취약한 상황”이라며 “농작물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공동방제 작업에 끝까지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고흥군, 권역별 드론 무상 방제
고흥군은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농가를 대상으로 드론을 활용한 농작물 무상 방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16개 읍·면 94농가 100ha가 대상이다. 농가가 희망하는 날짜에 권역별로 팀을 나눠 동시에 농약 및 비료 살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드론은 범씨를 직접 파종하고, 비료와 제초제 살포부터 병해충 방제까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으며, 방제인력을 80%이상 줄여 영농비 부담을 덜어 주고 농약 안전사고 예방에도 효과가 있어 농가에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고흥군 관계자는 “긴 장마로 인해 농작물의 각종 병해충 발생 및 확산이 우려된다”면서 “드론을 통한 적기방제를 통해 농촌의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 농업 경영비 부담을 줄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양시, 가축질병 예방 일제소독
광양시는 최근 폭우로 인한 가축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일제소독을 실시했다. 광양시는 최근 집중호우와 장마로 인해 각종 가축질병과 인수공통전염병, 수인성질병의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공동 방제단 2개반과 방제차량 1대를 동원해 수해·침수피해를 입은 섬진강 유역 다압면과 진상면, 진월면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방역했다. 축산농가에 정기적인 소독과 주기적인 환기, 가축에게 깨끗한 물과 사료 공급 등 철저한 가축방역



나주시가 농협 나주시지부와 함께 광역방제기 등을 총동원해 침수 벼 병해충 방제 작업을 하고 있다. <나주시 제공>



고흥군은 드론을 활용한 ‘농작물 무상방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고흥군 제공>



광양시는 폭우에 따른 가축질병 확산을 막기 위해 일제소독을 실시했다. <광양시 제공>

집중호우 피해 전남 5개 군 수돗물 정상 공급

전남도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내 5개 군 수도시설의 응급복구를 완료하고 단수 지역 수돗물을 정상 공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8일 500mm 이상 물폭탄과 섬진강댐 방류 등이 겹쳐 섬진강이 범람하면서 구례읍이 수중도시가 됐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최근 집중호우로 구례군의 취·정수장이 침수됐으며 담양·곡성·장성·화순 등 4개 군의 수도시설인 송수관로와 급배수관로 27개소가 유실돼 주민 1만4667세대, 3만3052명이 단수 피해를 입었다.

전남도와 5개 군은 한국수자원공사와 순천시의 협조를 얻어 단수지역에 지금까지 0.4 l 30만 개, 1.8 l 1만3000 개의 병물을 제공했으며, 비상급수차 23대와 소방차 2대를 운영해 음용수를 임시 공급했다. 수돗물 공급과 관련해 집중호우로 송수·급배수관로가 유실된 담양·곡성·장성·화순 등 4개 군은 긴급 응급복구를 완료하고 지난 12일부터 정상 공급

에 들어갔다. 침수됐던 구례읍 취수장도 응급복구를 마치고 지난 16일부터 수돗물을 공급 중이다. 다만 구례군 문척·간전면 일부지역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나 섬진강 취·정수장이 17일 응급 복구돼 대부분 정상화됐다. 전남도는 피해지역에 대한 항구 복구를 위해 중앙부처에 국비 건의를 마쳤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구례·담양군, 수재민 위한 임시 조립식 주택 공급

24㎡ 규모 1년간 무상 지원

주택 침수 등 수해로 갈 곳을 잃은 이재민들을 위해 구례군과 담양군이 임시 조립식 주택을 공급한다. 17일 구례군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구례군은 지난 7일부터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1184채의 주택이 침수 피해를 입었다. 피해가 발생한 지 일주일여가 넘었지만 여전히 400여명의 주민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대피소를 전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례군은 주택이 복구되거나 새로운 주거지를 구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는 조립식 주택을 설치하기로 하고, 행정안전부에 조립식 주택 50

동을 요청했다. 구례 다음으로 주택 침수 피해가 큰 담양군도 8동의 임시 조립주택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구례·담양 58동 등 총 148동의 임시 주거용 조립주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임시 조립주택은 방, 거실, 주방, 화장실과 전기·상하수도 시설을 갖춘 면적 24㎡ 규모의 컨테이너 하우스로 지어진다. 설치비용은 1동당 3500만원가량이다. 지자체에서 재해구호기금과 예비비 등으로 마련해 재난 피해 주민들에게 1년간 무상으로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임시 조립주택 소유권은 지자체에 있으나 주민

이 희망하면 매입도 가능하다. 임시 조립주택 설치에 지방자치단체와 관계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임시 조립주택 설치사업 추진단’에서 맡는다. 추진단은 임시조립주택 지원 신청서 접수부터 부지 선정, 기반시설 설치, 조립주택 제작·수급상황 관리, 관련 기술지원 등을 담당한다. 구례군 관계자는 “주택이 완전히 파손되는 등 당장 집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이재민들이 있다”며 “학교 강당 등에서 장기간 지내는 게 어려운 만큼 이들의 조기 생활 안정을 위해 조립식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순천시 “수재민 돕기 전자제품·의류 기증하세요”

순천시가 섬진강 범람으로 생활 터전을 잃은 항전면과 구례군의 수재민들을 돕기 위해 전자제품과 의류 모으기 행사를 진행한다. 17일 순천시에 따르면 항전면과 구례군을 방문해 수재민 구호 물품을 전달한 허석 시장은 주민들

에게 당장 입을 옷과 사용할 전자제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다. 허 시장은 곧바로 순천시 모든 부서에 수재민을 돕기 위한 전자제품과 의류 모으기 필요성을 전달했다. 이에 순천시 각 실과소에서는 유관기관들과

협력해 18일까지 최대한 신속하게 물품을 모으고 19일까지 분류작업을 거쳐 늦어도 20일까지는 수재민들에게 물품이 전달되도록 할 예정이다. 허 시장은 “수재민들에게 입을 옷과 가전제품이 절대 부족한 상황”이라며 “여벌의 여름옷과 수건, 사용하지 않는 밥통이나 가스렌지, 다리미, 드라이기 등 가전제품을 기증해 달라”고 요청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KAPI 한국광산업진흥회 주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위기대응 비대면 온라인 상담 종합상황실에 여러분을 모십니다.

비대면 온라인 상담 종합상황실 운영

- 기간** 2020. 6월 ~ 12월 (상시)
- 장소** 한국광산업진흥회 3층 비대면 온라인 상담 종합상황실
- 대상** 전국 광융합산업체, 해외마케팅센터(24개소), 해외바이어
- 상담신청** 한국광산업진흥회
- 상담시간** 현지 근무 시간에 맞춰 시간조정 상담(24시간)
- 상담방법** 기업, 바이어, 한국광산업진흥회 동시 상담

비대면 온라인 상담 종합상황실 기능

- ▶ 포스트 코로나 대비 중·장기 비대면 온라인 수출 상담지원
- ▶ 해외마케팅센터(24개소) 및 비즈니스 매칭을 활용한 글로벌 광융합 바이어 통합관리
- ▶ 광융합 공동브랜드, 시범사업, 특허, 기술제휴 등 기업 애로해결 원스톱 서비스
- ※ 비대면 온라인 상담 종합상황실 24시간 대응 체계 구축

▶ 주요내용

- 상시 온라인 수출상담회 운영
 - 국내기업 ↔ 해외바이어 간 비대면 온라인 화상회의
 - 바이어 섭외
 - 해외마케팅센터 24개소를 활용한 바이어 상담 지원
 - 한국광산업진흥회 자체 해외 프로젝트 바이어 상담 지원
 - 시스템 구축 : 컴퓨터, 화상카메라, 상담데이블, 글로벌 화상회의 S/W 등을 활용하여 종합상황실 구축
 - 행사진행 및 통역 : 한국광산업진흥회 담당자 배정을 통한 다자간 화상회의 체계 운영
 - * 영어 외 외국어는 사전 통역원 신청 접수
- 국제광융합산업전시회 및 컨퍼런스와 연계
 - 상시 온라인 수출상담회 운영으로 '20. 11. 19 ~ 20(2일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1·2전시장에서 온오프라인 수출상담회 교두보 역할 수행
- 광융합 프로젝트 상설지원
 - 해외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기업 ↔ 수요처간 온라인 화상회의
 - 해외 파견이 어려운 시범사업 지역 대상 추진전략 수립 화상회의
 - 광융합 공동브랜드, 시범사업, 특허, 기술제휴 등 상시 지원 및 애로사항 접수 센터 운영
 - 표준근무 시간대가 겹치지 않는 해외지역 대응 24시간 운영
- 문의 : 광융합산업본부 전시·마케팅부 ☎ 062-605-9642~7